

“광산시민 여러분이 구정의 중심이 되어주신 것, 광산의 가장 큰 경쟁력”

■ 병오년 새 봄 인터뷰-박병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새 봄이 왔지만 꽃샘추위가 아직 겨울의 끝 소매를 붙이고 있는 쌀쌀한 아침, 민생현장 탐방에 여념이 없는 박병규 광산구청장. “시장·경로당·지하철역·마트 등 시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곳이 곧 구청장실”이라는 생각으로

뛰고 있다. 민선 8기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국가적 정책 모델’이 된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박병규 구청장에게 민선 8기 남은 과제와 향후 계획을 들어본다. / 대담=이택형 본지 주필

▲2026년 병오년도 어느 덧 새 봄을 맞았습니다. 민선 8기 마지막 해이기도 한데도 소회가 어떠세요?

2022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쏙 지나가는데요.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참 촉박 같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와 민생의 파고, 기후위기, 안전 문제, 또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되묻는 사건들까지. 여러 일들이 많았요. 특히나 작년 한 해는 금호타이어 대형 화재, 극한 호우가 이어져서 어느 때보다 힘들었는데요.

금호타이어 화재 이후 무너진 지역 산업이 위기를 맞고, 고공 불안이 커졌을 때, 절박한 호소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광산구가 대한민국 1호 ‘고용 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기여하셨습니다.

이뿐 아니고, 위기마다 광산은 연대와 참여가 빛이 났습니다.

광산구 공직자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애썼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광산의 주인답게, 어떤 일이든 내 일처럼 힘을 보태 주신 덕에 흔들림 없이 민선 8기 광산구정이 잘 되고, 광산구가 하루하루 더 좋아지고, 대한민국 혁신을 선도한 것 같습니다.

▲지난 4년의 성취, 성과도 참 많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 공간 변화, 생활 공간 확충 등 하드웨어를 개선하면서, 시민 참여, 민주적 역량, 행정 혁신 등 소프트웨어를 함께 키워왔다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미래차 국가산단, 소부장 특화단지, 어등산 복합쇼핑몰 개발 등 광산의 경제 지형을 완전히 뒤바꿀 새로운 미래 동력이 확보됐고,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뤄진 광주 공군항우 통합 이전 합의, 광주송정역세권 대면혁의 시작점이 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합평 이전, 지역 학부도, 학생들의 숙원인 광산고등학교 신설, 광주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이전 등등 광산구에 물려 있던 해묵은 난제들이 하나둘 불꽃을 트면서 그야말로 광산구가 광주 미래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시민이 주인이라는 핵심 철학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경청·소통을 강화해 시민이 정책 주체가 되는 기반을 다진 것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이 동력이 돼 지속가능 일자리, 동 미래발전계획, 살던집 프로젝트, 1313 이웃살림 등 시민 삶과 지역 공동체에 이로운 변화를 만든 수많은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지난 3년 반 동안 각종 공모 평가에서 515건(공모 278건 수상 237건)이 선정돼 962억 원을 확보한 성과를 거둔 것도 중요한 성취였다고 평가합니다.

▲광산구에 좋은 정책이 많은 비결이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광산구 공직자들이 아주 유능하고, 매사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고요.

또 광산 시민 여러분이 구정의 중심이 된 것이 광산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봐요. 구청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민을 찾아가고, 현장에서 시민 이야기를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답을 찾아왔던 민선 8기의 노력이 쌓여서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정책, 의미 있는 성과로 나타난 것인데요.

제 취임 1호 결재인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 이어진 구청장 직통 문자서비스 등도 결국은 광산구정이 잘 되려면 무엇보다 시민 신뢰, 참여가 중요하다는 믿음에서 시작된 일인데요. 4년 가까이 거짓말이 아니라, 시장, 지하철역, 마트, 경로당, 아파트 단지 등 안 가본 곳이 없어요.

시민이 있는 곳 어디든지 책상, 의자 깔고, 거기를 구청장실 삼아서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게 받은 민원이 1만 건(2025년 기준 1만 1,466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특히, 그렇게 듣고, 처리 과정, 결과를 시민께 알려드리고,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했더니 행정을 보는 시민의 시각, 생각이 실제로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시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2023년에는 93%, 1년 뒤 2024년에는 94%, 그리고 작년에는 무려 96%가 나온 겁니다. 조사 명칭은 만족도였지만, 이전 결국 광산구 행정에 대한 시민의 강한 신뢰를 확인시켜 준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민원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느껴지는데, 올해 1호 결재도 될 하셨나 봤더니 시민, 민원에 관한 거더라고요.

민원 전 민원 해결 1004'라고, 민원을 받아서 처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이 먼저 움직여서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선제적 생활행정 모델을 해보자는 뜻에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선 8기 히트 상품인 경청·소통

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제 취임 1호 결재가 경청이었는데, 4년여 해보니까 시민 목소리를 듣고, 구정에 반영하는 것은 이제 척척 잘 된단 말이죠.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럼 여기서 더 필요한 게 뭐냐, 어떤 부분을 더 노력해야 우리 시민 삶의 질이 좋아지고, 광산에서 사는 행복감, 만족감이 높아질까, 깊은 고민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떠오르더라고요.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시절 ‘시민소통관계’ 등과 같은 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인 혁신 정책을 펼치셨는데, 이 과정에서 공직자들에게 강조한 것이 ‘민원을 잘 해결하라’가 아니라, ‘발견해오라. 발견 해오면 승진시켜준다’였거든요.

민원에 대한 행정의 관점, 접근법을 완전히 바꾸신 거죠.

그런 것처럼 광산구도 21개 동과 부서가 수평적 협력을 하면서 잠재 민원, 주민의 숨은 목소리를 찾아내 해결하는 예방적, 선제적 생활행정을

이런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광주송정역을 대한민국 서남권 관문으로 재편하기 위해 광장 확장과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2028년 완료될 목표로 역사 면적을 두 배 확대하는 공사에 착수했지만, 현재 이 사업은 역사만 넓히고, 시민이 모이고, 머무를 수 있는 광장이나 교통 편의를 높이기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역사가 넓어져도 광주송정역이 스쳐 지나가는 ‘경유역’에 그치는 현실은 바뀔 수 없다는 게 광산구의 판단이구요.

그래서 현재 3,600㎡ 규모의 광장을 1만 3,120㎡로 확 넓혀서 시민을 위한 보행·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버스, 택시 승차처, 환승 기능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국가사업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광산구는 이 문제를 단순히 환경 개선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적 과제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사실상 처음으로 광주에



박병규 광산구청장.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광주송정역 주변 공간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해법을 강구한 끝에 시민 수요가 높은 주차장, 쉼터 등 도시계획시설 조성을 통한 정비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총 6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우선 1단계로 방치된 시설, 노후 건축물을 철거해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 취약 요소를 제거해 시민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단계에서는 총면적 900㎡ 35면의

찾은 1만 545개 답변을 정리해 백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시민이 묻고, 답하면서 민주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한 것은 광산구가 대한민국을 물론 세계에서조차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녹서가 나오고 한 달 만에 국회 토론회에 제가 초청돼 사례 발표를 하고, 당시 의원 시절 토론장에 들려주신 김민석 총리님에도 녹서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민선 8기를 잘 마무리하기 위한 준비도 중요할 텐데요. 올해 구정 운영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민생, 민주주의라는 두 축으로 광산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시민에게 이로운 움을 주기 위한 구정의 완성도, 지속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인데요.

동 미래발전계획의 안정적 운영, 흔들림 없는 경청·소통 체계를 통해 시민이 지역 의제를 찾고, 해결하는 구조가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고, 풀뿌리 사회적 대화로 심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씨앗을 틔워서, 질 좋은 일자리 생태계를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고요.

시민의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뒷받침할 연대의 따뜻한 사회 안전망을 넓히고, 정교한 복지 체계를 완성하는 일에도 역량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일터, 삶터의 안전 수준을 높이며, 쓰레기를 덜 만들고, 생태자원을 잘 가꾸는 지속가능 녹색도시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산구 동료 공직자, 또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참여와 지혜가 있었기에 광산은 지난날 위기마다 다시 일어섰고, 더 나은 내일, 미래를 향해 앞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광산구는 민생, 민주주의라는 두 중심 기둥과 함께 대한민국 정책을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해 왔습니다.

민선 8기 정책, 성과들이 시민 삶속으로 더 깊이 녹아들고, 광산의 새로운 내일을 앞당기도록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2026년도 광산구 여정의 목표는 시민입니다.

더 열심히 듣고, 더 가까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선 8기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 국정과제 반영 ‘국가적 정책 모델’로 “시장·경로당·지하철역... 시민 있는 곳 어디든지, 그곳이 구청장실”

시민이 민원제기 하기 전, 행정이 먼저 행동 ‘민원전 민원해결 1004’

해보겠다는 것이구요.

그렇게 되면 민원이 줄어드는 것도 줄어드는 거지만, 무엇보다 민선 8기가 추구했던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가 더 단단해지고, 이 신뢰가 광산구의 더 나은 변화를 위한 시민 참여를 강화하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산구가 광주송정역 광장 확장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광주를 찾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장소가 광주송정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주송정역은 도시의 첫인상이자 도시 경쟁력 그 자체라 할 수 있는데, 실제 역에 가보면 공간, 편의시설 등 현실이 위상에 못 미치지 않습니까?

2024년 기준 하루 평균 이용객이 2만 7,000명을 넘어섰고, 2030년이면 약 3만 7,000명(국가철도공단 예측), 2035년에는 4만(주말)에서 4만 6,000명(주말)까지 늘어날 것인 전망(광주 시 용역 결과)이 있을 정도로, 앞으로 더 이용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광장다운 광장’을 만든다는 것이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송정역 맞은편 ‘일명 송정리 1003번지’도 광산구가 정비 사업에 나섰습니다. 20여 년 방치된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궁금합니다.

광주송정역 맞은편 폐 유흥가는 2005년 화재 사고 이후 사실상 영업행위가 멈춘 채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는데, 광주를 찾는 시민, 방문객들에게 좋지 않은 첫인상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 집을 하나 고칠 땐 도배장판도 하고, 페인트도 새로 칠하고, 문도 바꾸고 해야 하듯, 광주송정역 역사를 넓히고, 광장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역에 도착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포상가를 내버려둔다면, 시민이 모이고, 머무는 공간으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광산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오래전부터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지만, KTX 투자선도지구 사업에서 제외돼 마땅한 개선 대책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쉼터 등을 만들어 문화 향유, 상권 활력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업이 목표입니다.

▲민선 8기 지속가능 일자리 정책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면서 국가적 정책 모델로 떠올랐죠?

광산구가 추진하는 지속가능일자리 특구 조성 정책은 단순히 일자리를 만들고, 늘리는 것이 아닌, 양극화, 불평등, 인구 감소,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좋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풀어가는 ‘지속가능 사회 발전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일자리, 노동 관련 정책 방향이 광산구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정책과 굉장히 맞아 있어요.

이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가진 시대 전환에 대한 인식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렇게 보고요.

풀뿌리 사회적 대화로 시민의 1,436개 질문을 모아 지난 3월 지속가능일자리 녹서를 만들고, 또 이 질문들에 대해 시민, 노동자, 기업, 전문가가



2026년 지속가능일자리회 분과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민생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박병규 광산구청장.



전국녹색뉴딜조합 금호타이어 지회와 광산구청의 소통을 위한 만남.